

대학 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중심으로 —

박 태 영*

이 준 상**

1. 서론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등장과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등으로 사회복지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학계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교육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관련 학과의 설치이다.

1990년에 불과 40여개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해도 48개 대학 및 대학교 중 37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다(대구, 경북 교육통계, 2004). 하지만 갑자기 신설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가 과연 전문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해서인지, 시대의 인기영합에 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학이 입학정원의 미달과 함께 빚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즉 비인기전공학과 교수들의 문제, 대학의 재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전문적 지식함양을 통하여 사회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구조조정 의 희생물로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학문의 본질적 이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사회복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해치고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도전이며, 대학교육의 본질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위험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의 현장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교수의 부재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도 사회복지학과는 존재한다. 있더라도 한 명 정도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특성상 그들이 그 안에서 전문성을 운운하기조차 어렵다. 왜냐하면 주로 기득계층에 있는 교수집단들이 신설학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문의 특성 상 인접학문의 전공교수가 한, 두 명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비전공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학과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겠는가? 그들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란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 전문 사회복지인이 배출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인가? 자기기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둘째,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련 전공을 통하여 무수하게 사회복지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는 학부제니, 학과군제이니, 사이버대학이니, 하는 교육정책에 편승해서 사회복지계열로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버젓이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공교수가 하나도 없는 대학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는 상황이 우리 사회복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내가 살기 위하여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취약계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교육자나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셋째, 대학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사회복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전공교수의 수는 적고 학생은 많이 모집한다. 분필만 가지고 강의를 하여도 된다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대학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돌파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현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교수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대학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새롭게 변화하는 현장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실천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명 또는 세 명의 교수들이 100명 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사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넷째, 사회복지사의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력을 과잉 배출하고 있다.

2003년 한해에 15,795명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 2004). 그러나 2001년에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30,000여명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통계, 2004).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직무(간호, 유아교사, 기능직 등)와 관련 되어 있음을 볼 때 현재 사회복지사는 엄청난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사회복지현장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배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공급과잉인 전문직에 보수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낮은 보수는 전문직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며, 능력있는 인재들이 사회복지학을 기피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다섯째,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실패하였다. 이는 관련학과들이 기존의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교과목을 개설하여 보너스 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예를 들어 실습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사회복지 실천이나 정책 및 분야론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의 개발을 서두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현장과 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사회복지실천 학문이라는 특성상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서로 다른 궤적을 가지고 움직여 온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 있는 조직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곱째, 각 직능단체들의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침범하는 현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 단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복지교육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도전적이고 자기기만적인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논의가 대학과 각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교과목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과 각 직능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충분히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회

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한 대학 사회복지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과 유형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은 첫째, 학생이 교실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가치를 실습경험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현장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이론과 방법론을 확인하고, 토의하며,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김선희·조휘일, 2000).

현장실습에서 익혀야 하는 지식과 기술 및 가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지식에는 사회규범,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망, 지역사회기관들의 상호관계, 관료조직의 구조와 기능,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대한 지식 등이다.

둘째로 기술에는 문제해결과정 및 의미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과 자아의 의식적 활용과 관련된 기술, 동료 및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과 전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기술, 구체적인 실천전략들과 기법들으로써 실습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검증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셋째로 가치관에는 학생들이 도와주는 사람, 전문직 동료, 사회제도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실습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적 여건들에 의해 제기되는 딜레마를 통해서 분별하는 힘을 키우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어떤 자세를 지킬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Matson, 1967; Schubert, 1965 ; Simon, 1966; 김선희 외, 2000 재인용).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표는 첫째, 대학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실천적 적용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조직화, 분석, 개

입 계획의 수립과 이해, 개인 노력에 대한 평가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셋째, 지역사회 대상 집단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조직, 정책,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이해 증진과 능력 함양 다섯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자신의 적성 테스트 기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목적은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 및 가치를 현장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 배운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전문직 사회복지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은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에는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 근무지 실습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기 중 실습보다 방학 중 실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실습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학기 중 실습은 대학수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 1회씩 총 16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학기 중 실습은 실습과 실습세미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실습한 경험을 다른 기관에서 실습한 학생들과 나눌 수 있으며, 실습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실습을 주 1회씩 하는 관계로 업무가 단절이 되어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방학 중 실습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3-4주정도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형태로써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block placement와 비슷한 형태이다. 방학 중 실습은 학업이 없는 시기에 실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은 가능하지만 방학 중인 관계로 대학에서의 지도교수로부터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근무지 실습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부서를 바꾸어 실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한 실습형태이다(류종훈, 2000).

따라서 학생들은 현장과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에서의 이론수업과 현장에서의 실습내용과 접목시켜 또는 그 반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실습형태로 나아감이 요구된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과 대학의 역할

(1) 실습기관의 유형 및 역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게 될 사회복지기관을 분류해 보면 생활시설형, 사회복지관형, 상담기관형, 의료기관형, 공공복지정책형, 기획연구형, 사회운동 및 사회교육형, 사회복지와 교육통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구종희, 1999).

이러한 실습기관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달을 위한 전문직의 윤리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전달체계인 시설, 그리고 인력 공급원인 대학과 예비 자원인 학생들이 만나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장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한 눈에 드러나는 곳이다(성민선, 1995). 따라서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습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사회적 책임이며 특권인 것이다(박미정, 2000).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0)는 현장실습 기관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이 한 명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하느냐는 그들의 실습에 대한 목적달성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 실습기관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조직구조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실습기관이 학생들의 전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교육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세미나, 워크숍, 혹은 다른 학습경험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선희 외, 2000).

따라서 실습기관은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대학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지도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반드시 익히고 경험해야 하는 핵심적인 실습지도 내용에 대한 개발과 함께 실습생들과 실습지도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2) 대학에서의 현장실습과 준비사항

대학에서는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습과 관련한 이론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에 있어서는 현장과 함께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실습지도 교수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과정 중에 적어도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슈퍼비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습교육 시 지도교수는 1인당 1학기 기준 30명으로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강의, 토의, 슈퍼비전, 기관 방문 등을 행하며, 만약 실습학생이 30명을 초과할 시에는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실습교육 시 실습조교를 두도록 하며, 이들은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상황 검토,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실습지도 과정별 주요내용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실습지도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준비, 초기, 중간, 종결과정 및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비과정의 내용

실습현장에서의 실습준비가 실습생 실습수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습기관은 실습신청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습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김용일 외, 2002).

준비단계는 기관에서 실습생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기관에서는 실습지도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실습지도 계획을 세우고, 실습지도자를 선정하며, 면담을 통해 실습생을 선정하고, 기관과 대학간의 실습 일정을 논의하고, 실습생에게 배정할 사례를 선정하는 일들을 준비한다. 또한 선정된 실습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자신을 역할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특히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이 실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그 형식은 공식적이고, 구조화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태화종합사회복지관, 2003, p.47).

(2) 초기과정의 내용

실습이 시작되면 초기단계에서 하여야 할 업무는 실습생에 대한 교육적 사정이다. 학생에 대한 사정은 목적이 있고 성공적인 실습지도의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김선희 외, 2000). 따라서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개인정보 외에도 개별 면담을 통해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된 이전경험, 지식정도, 관심사, 학습동기들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은 실습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기관의 행정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이

시연, 2000).

(3) 중간과정의 내용

실습의 중간단계에서 실습생들은 실제적인 현장업무에 투입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실습 지도자는 실습생에게 배정된 실습 업무를 점검하고 슈퍼비전과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전문적 성장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실습 슈퍼비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례회의, 보조진행, 동시적 슈퍼비전, 녹음/녹화, 컴퓨터 및 온라인 기법, 역할극, 기록, 과제 등이 있다(이시연, 2004).

(4) 종결과정의 내용 및 평가

종결단계의 주요업무는 실습생들이 실습 결과를 통합하고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은 실습을 통해서 수행한 업무와 지식 및 기술의 향상 정도를 점검하고 실습생의 장래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실습평가는 실습전반에 관한 최종평가를 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태도, 업무수행능력,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문인숙, 1981). 또한 실습 지도자는 학생들로부터 실습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학생에 대한 실습평가서를 송부하고 실습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피드백이나 건의 사항을 전달한다.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문제점

(1)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학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 어느 기관에서 실습지도를 하는 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으로 실습을 가야하는지, 그 기관에는 실습 지도자가 있는지, 그리고 실습지도안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단지 전 학기의 선배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추측해서 가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 따라서는 실습지도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실습 지도자가 없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실습지도 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실습현장의 정보에 대한 것은 오로지 학생들의 몫으로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비전문가 혹은

은 경력이 부족한 실습지도자에게 에게 현장실습을 지도 받기도 하고, 실습지도 안도 없이 업무보조라는 명목아래 전문적인 실습과는 거리가 먼 허드렛일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은 결국 학생들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2) 대학의 현장실습에 대한 대응

대학은 기관과 실습계약 혹은 실습배치를 타협하기 전에 실습교육을 촉진하거나 혹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제약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김선희 외, 2000).

하지만 최근 많이 생겨난 사회복지학과와 학생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전공교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교수 1인당 관리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은 실정이다. 대구·경북에만 한해 2,000여명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교수가 전담해서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습의 번잡함 때문에 실습담당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과의 관계형성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대학과 현장간의 교류 없이 학생들과 기관의 실습 지도자에 의해서만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은 지도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지 못해 대학과 또 다른 분리를 낳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전공과 부전공 등 학문적 배경이 다름에도 실습지도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 실습지도를 하는 것은 실습지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전문성

오늘날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개념을 실제에 적용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일선의 현장실습지도자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김혜란, 1997). 따라서 실습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실습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김누리, 1999).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을 제시하고 있는 이미향(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실습생이 3년 미만의 실무경력을 가진 실습지도자로부터 실습을 받은 경우가 16.1%로 나타나고 있고, 실습지도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7%나 되었으며,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있는 경우는 33.3%로 나타나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습지도자의 적절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실습지도를 위한 기본 사항이다.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

저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실습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권고사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있어 실습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지도자로 구분하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2000년부터 실습지도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이시연, 2004).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적 마인드가 있으면서 사회복지의 지도원리를 실천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류종훈, 2002).

또한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에 있어서 첫째로 실습생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대함으로써 실습생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며, 둘째로 실습생을 위한 교육계획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로 실습생과의 규칙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개별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통해 실습활동상의 장단점을 개발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환류해야 한다. 넷째로 실습생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실습지도자 자신의 이론적 지식의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의 내용을 입수하고, 다섯째로 실습생의 학습진전과 사회복지기술의 적응 능력, 지도감독에 대한 태도 등을 대학 실습담당 교수에게 알리고 실습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정명숙, 2001). 즉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마인드와 함께 이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을 꼽고 있다(이미향, 2003). 즉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습지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실습지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미비와 협회나 기관차원에서의 실습지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실습비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납부하는 실습비는 천차만별이다. 대학의 등록금에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대학 자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내용에도

실습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학과 실습기관 간에 실습비에 대한 협약 문서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향(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실습기관에서는 주로 3-5만원을 실습비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비가 실습지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습비를 받는 곳이 실습비를 받지 않는 곳 보다 실습지도 내용이 충실하며, 실습비를 받을 경우에도 실습비를 많이 받을수록 실습지도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실습비는 교육의 대가라기보다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최소한의 강사료도 없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인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책정은 순수하게 실습생을 교육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실습생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실습생이 기관에서 준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실습지도자들은 선배들로부터 지도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역할을 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습에서도 봉사와 희생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비용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실습비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현실적인 실습비를 지불하고, 이에 따른 실습지도 내용의 적정 수준도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교육기관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으로 하였다. 사회복지교육기관의 경우 4년제 대학 13개교 21개 개설전공 및 학과, 2년제 대학 21개교 24개 학과, 4년제 산업체 2개교, 2년제 산업체 8개학과, 사이버 대학 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교육기관 당 실습담당교수 1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경우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경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3년에 발간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노인·장애인·지역사회복지관 61개, 아동·노인·장애인·여성·부랑인시설 236개,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205개 등 총 502개 시설 및 기관 중 2003년과 2004년에 실습지도를 하고 있는 시

설·기관·단체 309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 당 실습지도자 1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2일에서 24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기관 5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23개를 선정하여, 실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문지를 전자우편방식을 통해 교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309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설문지가 회수된 212개의 기관을 최종 분석하였고 회수율은 68.6%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교육기관 37개교 58개학과 및 전공을 대상으로 58부를 교부하여 17개 대학 22개 학과 및 전공과정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37.93%였으며, 1개 대학은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어 아직 실습생이 없으므로 일반적 사항에만 포함시켰으며, 실습과 관련한 설문에서의 분석은 제외하였다. 하지만 5회에 걸친 전화에도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과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전임교원 수, 전공일치, 입학생 수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0.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3) 조사도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경우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6문항과, 실습기관의 일반적 사항 2문항,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19문항, 실습지도 시 장애 요인 1문항, 형식적·편법적 실습 의뢰에 대한 사항 2문항,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에 관한 의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현장실습기관의 설문지 내용 구성

조사 내용		문항 수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급수, 직급, 사회복지관련 근무기간	6
실습기관의 일반적 사항	시설 유형, 사회복지사 수	2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실습기간,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여부, 실습 지도자의 유무 및 인원, 2003년 실습지도 학생 수와 횟수 및 인원,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실시여부 와 회수 및 시간, 연간 실습 적정 인원, 실습지도비 수령 여부, 실습 시 소요되는 비용, 업무할애정도	19
실습지도 시 장애 요인		1
형식적·편법적 실습 의뢰에 대한 사항	형식적·편법적 실습 의뢰를 받은 경험의 유무와 대처 방법	2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에 관한 의견		5
계		35

사회복지교육기관의 경우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인력사항에 관한 2개 문항과, 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정원에 관한 12개 문항,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16문항, 실습교과목대행기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세부적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기관의 설문지 내용 구성

조사 내용		문항 수
교수인력사항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2
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정원	2003년 입학정원, 2004년도 2월 졸업생 수 (주간, 야간, 산업체위탁, 사이버)	12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실습교육 개설학기, 실습생 파견기간, 파견기관의 수, 파견생 수,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및 시간, 실습이론수업 실시 여부 및 시간, 실습전담교수 유무 및 인원, 실습전담교의 유무, 실습기관 방문지도 여부, 학생 1인당 실습지도비 금액 및 부담방식, 실습점수 산정 방식, 실습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여부	16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대한 의견		5
계		35

* 설문에 응하지 않은 대학 및 학과는 homepage 및 전화조사에 의한 것임

4. 조사결과 분석 및 고찰

1)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1) 일반적 특성

① 응답자의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급수, 직급, 사회복지 관련근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	88	41.5	
	여	124	58.5	
	계	212	100.0	
연령대	20대	73	34.4	M:33.04
	30대	104	49.1	
	40대	27	12.7	
	50대	6	2.8	
	60대	2	.9	
	계	212	100.0	
학력	고졸이하	1	.5	
	전문대졸	42	19.8	
	대졸	96	45.3	
	대학원 재학 및 수료	38	17.9	
	대학원 졸업이상	35	16.5	
계	212	100.0		
직급	일반사회복지사	51	24.1	
	주임, 대리, 선임	20	9.4	
	과장, 팀장	81	38.2	
	부장, 사무국장	41	19.3	
	기타	18	8.5	
	무응답	1	.5	
계	212	100.0		
사회복지관련 근무기간	1년 미만	9	4.2	M:5.8
	1년-3년 미만	43	20.3	
	3년-5년 미만	38	17.9	
	5년-7년 미만	41	19.3	
	7년-10년 미만	31	14.6	
	10년 이상	48	22.6	
	무응답	2	.9	
계	212	100.0		
자격증 급수	1급	153	72.2	
	2급	47	22.2	
	3급	1	.5	
	없음	11	5.2	
	계	212	100.0	

실습지도자의 성별은 여자가 58.5%이며 남자는 41.5%로 여자가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83.5%가 20대에서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30대가 49.1%, 20대는 34.4%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33.04세였다. 실습지도자의 최종학력은 대졸이상이 79.7%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학원 재학 이상이 34.4%로 나타나 학문적인 경력에 전문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습지도자들의 직급은 과장·팀장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회복지사 24.1%, 부장·사무국장 19.3%, 주임·대리·선임 9.4%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자들의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5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는 1급이 72.2%, 2급 22.2%, 3급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5.2%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에도 사회복지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현장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의 일반사회복지사가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도 24%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실습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실습지도자의 자질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② 조사기관의 특성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은 시설 유형, 사회복지사 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기관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기관의 사회복지사 수	없음	1	.5	M:8.3
	1-3명	54	25.5	
	4-6명	61	28.8	
	7-9명	37	17.5	
	10-12명	28	13.2	
	13명 이상	30	14.2	
	무응답	1	.5	
	계	212	100.0	
시설유형	사회복지관	45	21.2	
	생활시설	76	35.8	
	관련기관 및 단체	88	41.6	
	무응답	3	1.4	
	계	212	100.0	

기관의 사회복지사 수는 6명이하가 54.3%, 7명 이상이 44.9%로 나타나 기관의 평균 사회복지사 수는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한 기관도 하나 있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가 41.6%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5.8%, 사회복지관 21.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는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이 아닌 기관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그 외 사회복지직능단체, 쉼터, 상담실, 정신보건센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과 생활시설이 그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실습지도 실태

① 2003학년도 실습지도

2003학년도 실습지도와 관련하여 2003년 실습지도 학생 수와 횟수 및 인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2003학년도 실습지도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2003년 실습지도 학생 유무	있다	186	87.7	
	없다	23	10.8	
	무응답	3	1.4	
	계	212	100.0	
2003년 실습횟수	1회	54	28.6	M: 2.2
	2회	73	38.6	
	3회	26	13.8	
	4회	16	8.5	
	5회 이상	12	6.3	
	무응답	8	4.2	
	계	189	100.0	
2003년 실습인원	5명 이하	56	29.6	M:11.8
	5-10명 이하	46	24.3	
	10-15명 이하	33	17.6	
	15-20명 이하	16	8.5	
	20-30명 이하	11	5.8	
	30명 이상	20	10.5	
	무응답	7	3.7	
계	189	100.0		

조사대상 기관 중 2003년도에 실습지도를 한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186개 87.7%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23개 10.8%로 나타났다. 이 중 실습지도를 한 학생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을 제외하고 실습횟수를 분석해 보면 2003년도에 2회 이하의 실습을 실시한 기관이 67.2%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의 실습을 실시한 기관은 28.6%, 5회 이상 실시한 기관도 6.3%로 나타났다.

2003년도 실습인원을 살펴보면 10명 이하의 실습생을 지도한 기관이 5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명 이상의 실습생을 지도한 기관도 10.5%로 나타났다.

연간 4회 이상 실습을 하는 기관이 14.8%이고, 30명이상 실습 지도한 기관이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실습 지도를 기관의 보조적 내지는 부수적인 업무로 여기는 풍토에서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과 실습 지도의 병행이라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② 실습지도자

실습 지도자와 관련하여 실습 지도자의 유무, 기관의 실습 지도자 수, 전체업무 중 실습지도에 할애하는 업무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실습 지도자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 지도자의 유무	있다	190	89.6	
	없다	21	9.9	
	무응답	1	.5	
	계	212	100.0	
기관의 실습 지도자 수	1명	118	61.8	M:1.5
	2명	33	17.3	
	3명	10	5.2	
	4명 이상	12	6.3	
	무응답	18	9.4	
	계	191	100.0	
전체업무 중 실습지도에 할애하는 업무 정도	5% 미만	5	2.4	M:25.5
	5-10% 미만	28	13.2	
	10-15% 미만	31	14.6	
	15-20% 미만	11	5.2	
	20-30% 미만	46	21.7	
	30% 이상	83	39.2	
	무응답	8	3.8	
계	212	100.0		

실습 지도자의 유무에 대한 답으로는 있다가 89.6%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습 지도자가 없는 기관도 9.9%로 나타났다. 실습 지도자가 없는 기관이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실습 지도자가 없다고 답한 기관을 제외하고, 기관의 실습 지도자 수를 살펴보면 1명의 지도자가 있는 기관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무 중 실습지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30%이상 차지한다는 답이 39.2%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25.5%로 나타났다.

③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과 관련하여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여부 및 이론교육 시간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여부	한다	182	85.8	
	하지 않는다	30	14.2	
	계	212	100.0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시간	10시간 미만	42	19.8	M:26.7
	10-30시간 미만	56	26.4	
	30-60시간 미만	42	19.8	
	60시간 이상	21	9.9	
	무응답	21	9.9	
	계	182	100.0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한다가 85.8%, 하지 않는다가 14.2%로 나타나 실습에 따르는 이론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 지도자의 존재유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론교육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10-30시간 미만이 26.4%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미만과 30-60시간 미만은 19.8%로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60시간 이상도 9.9%로 나타났다. 평균이론 교육시간은 26.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기간 중에 평균 하루 한 시간 이상 씩 이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론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 실습기관도 상당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하여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실시여부,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회수,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실습 오리엔테이션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여부	실시한다	201	94.8	
	실시하지 않는다	10	4.7	
	무응답	1	.5	
	계	212	100.0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회수	1회	147	72.8	M:1.3
	2회	20	9.9	
	3회 이상	13	6.4	
	무응답	22	10.9	
	계	202	100.0	
오리엔테이션 시간	1시간	50	24.8	M:3.0
	2시간	57	28.2	
	3시간	22	10.9	
	4시간	24	11.9	
	5시간 이상	26	12.9	
	무응답	23	11.3	
	계	202	100.0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실시한다가 94.8%로 나타나 대부분의 실습기관에서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의 회수는 1회가 7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과반수 이상인 53%가 2시간 이하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실습 지도비

실습 지도비와 관련하여 실습지도비 수령 여부, 기관에서 수령하는 실습지도비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실습 지도비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지도비 수령 여부	받는다	159	75.0	
	받지 않는다	48	22.6	
	무응답	5	2.4	
	계	212	100.0	
기관에서 수령하는 실습지도비	3만원 미만	2	1.2	M:4.4
	3만원	48	29.3	
	4만원	15	9.1	
	5만원	81	49.4	
	6만원 이상	8	4.9	
	무응답	10	6.1	
	계	164	100.0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75%가 받는다고 답하여 대부분 실습지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습지도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22.6%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수령하는 실습지도비를 금액으로 보면 5만원이 4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3만원이 29.3%로 나타나, 기관에서 수령하는 실습지도비는 평균 4.4만원으로 나타났다.

⑥ 형식적·편법적 실습

형식적·편법적 실습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형식적·편법적 실습의뢰 받은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20	56.6
없다	92	43.4
계	212	100.0

형식적·편법적 실습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형식적·편법적 실습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6.6%가 형식적·편법적 실습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형식적·편법적 실습의뢰에 대한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형식적·편법적 실습 의뢰에 대한 대처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상대방의 요구대로 실습지도를 했다	1	0.8
실습지도를 거절했다	42	35.0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실습지도를 했다	65	54.2
기타	8	6.7
무응답	4	3.3
계	120	100.0

형식적·편법적 실습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120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가를 물어본 결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실습지도를 했다가 54.2%로 가장 많았고, 실습지도를 거절하였다가 35%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요구대로 실습지도를 했다고 대답한 기관도 1기관 있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실습지도 시간을 규정보다 줄이는 경우와, 실습 이외의 내용(견학, 욕구조사 참가 등)으로 실습을 대체하는 경우, 실습요일 및 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시간제, 사이버, 산업체 등과 같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편법적인 사회복지실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⑦ 실습지도 시 장애 요인

실습지도 시 장애 요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실습지도 시 장애 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종합점수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48	22.6	42	19.8	35	16.5	263	2
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	43	20.3	22	10.4	29	13.7	202	3
실습지도인력 부족	80	37.7	55	25.9	18	8.5	368	1
대학의 무관심	7	3.3	11	5.2	22	10.4	65	5
학생자질 부족	22	10.4	29	13.7	37	17.5	161	4
기 타	8	3.8	1	.5	6	2.8	32	6
무응답	4	1.9	52	24.5	65	30.7		
계	212	100.0	212	100.0	212	100.0		

실습지도 시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습지도인력 부족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이 2순위, 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3순위로 나

타났다. 학생의 자질 부족과 대학의 무관심에 대해 응답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실습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실습지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습회수 및 실습생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습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부분은 실습 지도자의 양성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적정 실습지도 방안

① 적정 실습지도 회수

적정 실습지도 회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연간 적정 실습지도 회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1회	59	27.8	M:1.99
2회	113	53.3	
3회	7	3.3	
4회 이상	22	10.4	
무응답	11	5.2	
계	212	100.0	

현장실습 기관에서 연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실습회수는 2회 이하가 81.1%, 3회 이상이 13.7%로 나타나 실습기관 측에서는 2회 이하의 실습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적정 실습지도 인원

적정 실습지도 인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연간 적정 실습지도 인원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연간 적정 실습지도 인원	5명 미만	67	31.6	M:9.73
	5-10명 미만	43	20.3	
	10-15명 미만	49	23.1	
	15-20명 미만	11	5.2	
	20명 이상	32	15.1	
	무응답	10	4.7	
	계	212	100.0	

현장실습기관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간 실습인원은 10명 미만이 51.9%로 과반수 정도로 나타났고, 10명-15명 미만이 23.1%, 15명 이상도 20.3%로 나타나, 평균은 9.7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장에서 바람직한 실습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연 2회에 1회 당 5명 정도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③ 적정 실습지도비

적정 실습지도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적정 실습지도비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지도 시 실습생 1인당 소요되는 비용(1회 실습기준, 인건비 포함)	3만원 미만	21	9.9	M:12.0
	3-5만원 미만	21	9.9	
	5-10만원 미만	39	18.4	
	10-20만원 미만	31	14.6	
	20만원 이상	32	15.1	
	무응답	68	32.1	
	계	212	100.0	

실습지도 시 실습생 1인당 소요되는 비용(1회 실습기준, 인건비 포함)은 5-10만원이 18.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12만원으로 나타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재 받고 있는 지도비가 2.7배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

①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백분율
적극 찬성	56	26.4
찬성하는 편	129	60.8
반대하는 편	23	10.8
적극 반대	1	.5
무응답	3	1.4
계	212	100.0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8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71	80.7
없다	37	17.5
무응답	4	1.9
계	212	100.0

실습지도자격인증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가 있다가 80.7%로 나타나 기관에서도 실습지도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실시에 대한 참여의향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실시에 대한 참여의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실시에 대한 참여의향

구 분	빈도	백분율
있다	176	83.0
없다	33	15.6
무응답	3	1.4
계	212	100.0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 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3%로 나타나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기관에서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실습지도자격 인증주최 기관

실습지도자격을 위해 어떤 기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실습지도자격 인증주최기관

구 분	빈도	백분율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1	9.9
사회복지사협회	74	34.9
관련시설기관협회	48	2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7	26.9
기 타	6	2.8
무응답	6	2.8
계	212	100.0

실습지도자격 인증주최기관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6.9%, 관련시설기관협회 22.6%,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9.9% 순으로 나타났다.

⑤ 자격 있는 지도자 소속기관에 실습생 배치

자격 있는 지도자 소속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자격 있는 지도자 소속기관에 실습생 배치

구 분	빈도	백분율
적극 찬성	78	36.8
찬성하는 편	112	52.8
반대하는 편	19	9.0
무응답	3	1.4
계	212	100.0

자격 있는 지도자 소속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9.6%로 나타나 대부분 실습지도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교육기관

(1) 일반적 사항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2003년도 입학생 정원(주간, 야간, 산업체 위탁,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포함), 전공교수의 유무, 전임교수의 수, 전공교수의 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2003학년도 입학정원

대학구분	대학 수	개설과정 수	입학 정원	교수인원			
				전공교수 없는학과	전임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전공교수 비율
4년제	13	21	1,064	5	82	38	46.3
2년제	21	24	2,605	13	71	15	21.1
산업체	4년제	-	120	-	-	-	-
	2년제	-	547	-	-	-	-
사이버	4년제	1	300	1	1	0	0
	2년제	2	350	0	4	4	100
계	37	58	4,986	19	158	57	36.1

① 입학정원

2004년도 입학정원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이 13개교에 22개 과정을 개설하여 1,064명의 입학정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이 21개교에 24개 과정을 개설하여 2,605명, 4년제 사이버대학이 300명, 2년제 사이버대학 2개 교가 350명으로 총946명의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4년제 2개 대학에서 산

업체 모집을 통하여 80명을 모집하고 있고, 2년제 8개 대학에서 산업체 모집으로 547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1개 전공 및 학과에 평균 85.96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 전공교수 1인당 신입생은 86.8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임교수 1인당 신입생 수 역시 31.3명으로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전임교원의 비율(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전임교수 비율은 재학생 25명당 교수1인 임)을 적용하여 볼 때 교수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② 전공교수 인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인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수 등 전공교수 인원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교원은 4년제가 82명, 2년제가 71명, 사이버대학이 5명이며, 전임교수 중 전공교수는 전혀 없는 대학이 4년제는 5개학과, 2년제는 13개 학과 등이며, 전공교수의 비율도 4년제는 46.3%, 2년제는 2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교수가 없이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57개의 사회복지전공 및 관련전공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57명의 전공교수가 있다는 것은 1개 과정에 평균적으로 전공교수가 1명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복지교육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응한 17개 대학 22개학과의 전공교수가 57명 중 48명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조사에 응하지 않는 20개 대학에는 전공교수가 없거나 있어도 그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많고 제대로 가르칠 교수는 적어서 양질의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실한 교육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 조사에 응한 16개 대학의 전임교수 수 및 전공교수 수

대학 수	전임교수 수	전공교수 수	전임교수 대 전공교수 비율
17	64	48	75%

(2) 실습교육 실태

① 실습교육 개설 학기

실습교육 개설 학기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실습교육 개설 학기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1학기	2	12.5	
2학기	7	43.8	
1, 2학기 모두	7	43.8	
계	16	100.0	

실습교육 개설 학기에 관해서는 실습교육을 2학기나 1, 2학기 모두에 개설한다는 대학이 87.6%로 나타나 1학기에 개설하는 대학에 비해 7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실습생 파견

실습생 파견 기간, 실습생 파견 기관의 수, 연간 파견 실습생 수 등 실습생 파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 실습생 파견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생 파견 기간	학기 중	2	12.5	
	방학 중	12	75.0	
	학과와 방학 중 모두	2	12.5	
	계	16	100.0	
실습생 파견 기관의 수	20개 미만	3	18.8	M: 50.56
	20-45개 미만	5	31.3	
	46-51개 미만	2	12.5	
	52-100개 미만	4	25.0	
	100개 이상	2	12.5	
계	16	100.0		
연간 파견 실습생 수	60명 이하	3	18.8	M: 124.38
	61-90명 이하	3	18.8	
	91-120명 이하	5	31.3	
	121-200명 이하	2	12.5	
	201명 이상	3	18.8	
	계	16	100.0	

실습생 파견 기간은 방학 중에 파견한다는 답이 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기 중에 실습생을 파견하거나 학기와 방학 중 모두 실습생을 파견한다는 대학도 각각 12.5%로 나타났다.

실습생 파견기관의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사 대상 대학 중 50.1%가 45개미

만의 기관으로 실습생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7.5%는 46-100개미만의 기관으로, 12.5%는 100개이상의 기관으로 실습생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파견하는 실습생의 수를 살펴보면 90명 이하의 실습생을 파견하는 대학은 37.6%, 91-200명 이하는 43.8%, 201명 이상의 실습생을 파견하는 대학도 18.8%로 나타나, 연간 평균 124.38명의 실습생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교수 3명 정도가 실습생 124명을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현장실습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③ 실습교육 실시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시여부, 실습 이론수업 실시여부, 실습 이론수업 시간 등 실습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실습교육 실시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여부	실시함	16	100.0	
	계	16	100.0	
실습 이론수업 실시여부	한다	10	62.5	
	하지 않는다	6	37.5	
	계	16	100.0	
실습 이론수업 시간	2시간	4	40.0	M: 2.7
	3시간	6	60.0	
	계	10	100.0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16개 대학 모두가 실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이론수업의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한다는 대학이 62.5%, 하지 않는다는 대학이 37.5%로 나타나 실습이론을 하는 대학이 하지 않는 대학보다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이론수업 시간은 3시간이 60%, 2시간이 40%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업시간은 2.7시간으로 나타났다.

④ 실습전담 인력

실습전담교수 유무, 실습전담교수 인원, 실습전담조교 유무 등 실습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실습전담 인력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전담교수 유무	있다	12	75.0	M: 2.25
	없다	4	25.0	
	계	16	100.0	
실습전담교수 인원	1명	7	58.3	
	2명	2	16.7	
	4명	2	16.7	
	8명	1	8.3	
	계	12	100.0	
실습전담조교 여부	있다	1	6.3	
	학과조교가 대행한다	11	68.8	
	없다	4	25.0	
	계	16	100.0	

실습전담교수의 유무를 살펴보면 실습전담교수가 있는 대학이 75%로 나타났고, 실습전담교수가 없는 대학이 25%로 나타났다. 실습전담교수가 있다고 답한 12개 대학 가운데 실습전담교수 인원이 1명인 대학이 5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명과 4명이 있는 대학은 각각 16.7%로, 8명이 있는 대학이 8.3%로 나타나 평균적인 실습전담교수 인원은 2.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전담조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학과조교가 대행한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전담조교가 없는 대학도 25%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실습을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실습비 부담방식

학생실습 지도비 부담방식 등 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학생실습지도비 부담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학생 개별 부담	2	12.5
대학에서 일괄징수 후 부담	8	50.0
공동부담	6	37.5
계	16	100.0

실습지도비의 부담방식은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실습비와 교수들의 실습지도비를 대학에서 등록금 납입 시 일괄 징수 후 부담하는 방식이 50.0%로 가장 높고,

기관에 지급하는 실습비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실습순회지도비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공동부담이 37.5%,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실습비는 학생들이 지급하고 대학에서 실습지도비 및 기타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학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전공 학과와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대학 측의 배려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⑥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와의 관계

가. 실습기관 방문지도 여부

실습기관 방문지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실습기관 방문지도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반드시 방문한다	8	50.0	
가능한 방문하는 편이다	8	50.0	
계	16	100.0	

실습기관 방문지도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문한다와 가능한 방문하는 편이다가 각각 50%정도로 나타나 실습기관 방문지도를 하지 않는 대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실습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여부

실습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9> 실습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한다	6	37.5	
하지 않는다	10	62.5	
계	16	100.0	

실습지도자와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하지 않는다가 62.5%로, 한다의 37.5%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은 교과목 중 피드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습지도자와 교수, 그리고 학생간의 공동학습이 중요한 교과목임을 고려할 때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가 이를 만회하기 위

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 현장실습학점 산정방식에서 기관점수 반영비율

현장실습학점 산정방식에서 기관점수 반영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현장실습학점 산정방식에서 기관점수 반영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50%	13	81.3	M: 56.25
80%	2	12.5	
90%	1	6.3	
계	16	100.0	

현장실습학점 산정방식에서 기관이 주는 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50%를 반영한다는 답이 81.3%로 가장 많았으며, 80%를 반영한다 12.5%, 90%를 반영한다 6.3%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기관이 주는 점수는 56.25%가 현장실습 학점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평가의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 도입

①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과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참여의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적극 찬성한다	4	25.0	
	찬성하는 편이다	6	37.5	
	반대하는 편이다	4	25.0	
	적극 반대한다	2	12.5	
	계	16	100.0	
실습교과목대행기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참여의사	있다	10	62.5	
	없다	6	37.5	
	계	16	100.0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한다가 62.5%, 반대한다가 37.5%로 나타났고,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참여의사에 대한 의견도 참여하겠다가 62.5%, 참여하지 않겠다가 37.5%로 나타나,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교과목대행기관에 대한 제도적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의 관리 주체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의 관리를 어느 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의 관리 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3	18.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9	56.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12.5
무응답	2	12.5
계	16	100.0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의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18.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실습지도자들에 대한 실습기관인증제 관리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실습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으로 학생 위탁 의향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으로 학생 위탁 의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으로 학생 위탁 의향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0	62.5
없다	5	31.3
무응답	1	6.3
계	16	100.0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으로 학생 위탁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위탁할 의향이 있는 대학이 62.5%이며 그렇지 않은 대학이 31.3%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실습생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측의 역할, 시설이나 기관의 역할, 대행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④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적정 실습비

실습교과목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적정 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적정 실습비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3만원미만	5	31.3	M: 4.0
3-5만원미만	5	31.3	
5-7만원미만	3	18.8	
7-10만원미만	1	6.3	
무응답	2	12.5	
계	16	100.0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적정 실습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라는 질문에는 5만원 미만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6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5만원 이상이 적당하겠다는 의견도 25.1%로 나타나 평균은 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현장에서 현재 받고 있는 실습비의 평균이 4.4만원이고, 적정한 실습비용은 12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대학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실습비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교육현장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현장

(1) 실습 지도자 교육 및 자격 관리

조사결과 지도자는 30대의 대졸학력으로 과장이나 팀장이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평균 5.8년이며,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72.2%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하가 20.3%, 사회복지관련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24.5%, 2급 이하의 자격증 및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27.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실습지도자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의 경력자 또는 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장의 실습지도자들은 실습지도할 때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이 실습지도 인력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실시에 대한 참여의향도 참여하고 싶다가 83.05%로 나타나 실습지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실습생의 적정 배치

조사대상 기관들은 1년에 평균 8.3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유형은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가 41.6%, 생활시설이 35.8%, 사회복지관이 21.2%로 나타났으며, 1년에 진행되는 실습 횟수는 평균 2.2회였으나 바람직한 횟수는 1.9회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실습인원은 기관 당 평균 11.8명을 지도하고 있었으나 적정한 인원은 9.73명으로 현재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습지도자가 있는 경우가 89.6% 실습지도자 수는 기관 당 평균 1.5명이 있었고 실습지도를 위해 전체 업무 중 25.5%를 할애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학 또는 학생들로부터 형식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실습의뢰를 받은 경험이 56.5%나 있었으며, 이런 경우 실습지도를 거절한 실습지도자는 35.0%에 불과했다. 특히 실습지도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실습지도시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습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는 대학과 사회복지현장 간의 사전접촉과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실습비용 부담방식

실습비용부담방식은 실습내용, 실습방법, 실습기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조사결과 실습지도비를 받는 기관이 75%였으며, 실습지도비를 받는 기관들의 평균 금액은 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습지도비를 실습지도시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느냐는 물음에는 평균 12만원으로 나타나 현재 받고 있는 실습비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실습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실습지도자격 인증제의 도입

실습지도자격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7.2%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으며, 실습지도자격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80.7%가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증제를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련시설 및 기관의 협회 순으로 나타나 현장의 실습지도자들은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들이 실습지도자격 인증제를 주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사회복지교육기관

(1) 전공 교수의 적정 수 확보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37개 대학에 57개 학과 및 전공에 158명의 전임교수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임교수는 57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2년제에서는 전공교수의 비율이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4년제에서도 46.3%로서 전임교수의 수도 교육부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전공교수의 부족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공교수가 없이 운영하는 학과도 19개 학과로서 이는 사회복지교육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사회복지전공 학생 수의 적정화

2004년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에 입학한 학생 수는 4년제 1,064명, 2년제 2,605명, 사이버650명, 산업체627명으로 총 4,946명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시간제 등록생 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합치면 그 수는 5,000명을 넘는다. 이는 1980년 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인 4,002명보다 많은 숫자이고, 2003년 한해에 발급한 사회복지사 15,795명(보건복지부 2004년 자료)의 1/3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는 2003

년 한 해 졸업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이 45,000명(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자료)임을 고려 해 볼 때 졸업생의 10%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받는 기현상을 보일 것이며,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총 종사자 수가 약30,000명(보건복지부 통계지표)임을 고려 해 볼 때 과잉 배출이 아닐 수 없다.

(3) 실습교육 강화 및 실습지원비

조사대상 16개 학과는 실습오리엔테이션은 모두가 실시하고 있지만 실습기간을 전후해서 진행되는 실습에 대한 대학에서의 정규시간은 10개교에 실시하고 있고 6개교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습의 성격상 피드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습전담교수도 1명이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었고, 없는 대학도 4개교나 되었으며, 전담조교도 1개교에서 두고 있다. 실습기관 및 지도자들과 공동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습기관의 방문 및 간담회 워크숍 등에 대해서는 방문을 반드시 하는 대학은 8개교(50%), 간담회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대학은 6개교(3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얼마나 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실습에 대한 체계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습비는 사실상 10개 대학에서 전적으로 학생에게 부담을 하고 있으며, 실습순회지도비, 지도일지 제작비, 실습간담회 경비 등을 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6개 학과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이 실습과 관련한 3학점의 경비를 모두 등록금에 포함 시켜놓고도 일방적으로 모든 부담을 학생에게 지우는 것은 교육비의 적절한 사용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 실습교과목대행기관제도

실습교과목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사회복지실습기관인증, 사회복지실습인증대학 선정, 오리엔테이션, 실습지 배정, 실습지도, 실습지도자 교육, 실습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10개교(60%)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6개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대행기관으로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협회가 9개교(56.3%)였으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순이었다. 실습교과목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적정실습비는 1인당 4만원으로 이는 현장의 실습지도자들이 적정액이라고 제시하는 1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볼 때 사회복지실습교육을 체계화 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에서의 실습과견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특히 지방대학)은 입학인원의 감소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입학정원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대체하고 기존의 학과에 있던 교수를 사회복지학과로 보낸다. 그 결과 현재 사회복지학과는 사회학이나 심리학, 행정학, 상담학과 같은 인접학문을 전공한 교수들뿐만 아니라 산업공학과, 의상디자인, 경찰, 국문학, 신학, 경영학 등의 전공 교수들이 대거 옮겨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낸다는 것은 사학의 특성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학과 사회복지현장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실습인증대학(가칭)을 제도화해서 파행적인 사회복지교육현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현장도 실습을 하기에는 실습지도자의 자격이나 실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습인증제도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실습지도자·실습기관 및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습인증기관의 자격을 제도화하고, 실습인증대학들은 실습인증기관이 아닌 곳으로는 실습생을 파견하지 말고, 실습인증기관들도 실습인증대학들이 아닌 대학이나 학과에서의 실습의뢰 및 취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앞으로 매년 실습대상자가 5,000명이라는 점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시설이나 기관의 수를 생각해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지선정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해 질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실습지도자자격인증 및 실습인증기관 그리고 실습인증기관의 제도화를 위해서 이를 주관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과 대학 간의 실습교육 연계 강화, 실습과목 강의안 마련, 적정한 실습비용 확보, 실습 지도자 교육 및 관리, 실습생의 적정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학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습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목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자격을 이수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학점을 3학점에서 6학점이나 그 이상의 학점으로 강화하고, 실습관련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아울러 사회복지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종회. 1999. “사회복지대학의 실습통합 모형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34.
- 김누리. 2000. “실습 슈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조희일. 2000. 『사회복지실습』. 서울: 양서원.
- 김용일. 2003.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용일·양옥경. 2002. 『사회복지 슈퍼비전문』. 서울: 양서원.
- 김혜란. 1997. “사회복지교육의 발전방향: 사회복지교육자의 분석”. 『사회복지연구』 9.
- 류종훈. 200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론과 실제』. 서울: 청목출판사.
- 문인숙 역. 1980. 『사회사업지도감독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미정. 2000.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습지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 성민선. 199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습 교육현황”. 가톨릭대 논문집 1.
- 이시연. 2004.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의 적용과 과제”. 『사회복지』 16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미향. 2004.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의 실태와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004. “2004년도 사회복지실습 지도자 교육”.
- 정명숙. 2001.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실습기관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수훈. 2004. “사회복지실습 슈퍼바이저 교육”.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003. 『사회복지실습지도』. 서울: 양서원.
- 한국사회복지대학교교육협의회. 2002.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